

조울증 40대母 아들·딸과 투신 자살

광주서... "힘들어 먼저 간다, 미안하다" 유서

조울증 치료를 받은 40대 여성이 두 자녀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모두 숨졌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는 동안 자살은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윤리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경제난 심화로 이러한 사회적 비극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 윤리·생명 존중 가치관에 대한 재

인식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12일 오전 8시1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민모(여·42)씨와 아들(9), 딸(5)이 추락해 민씨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출근 중에 '쿵' 하는 소리가 차레로 들려 가봤더

니 세 명이 쓰러져 있었다. 여자 아이는 의식이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씨가 주거지인 풍암동에 승용차로 아이들과 함께 이 아파트로 와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5분 민씨의 검은색 차량이 들어와 자녀와 함께 아파트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등이 찍힌 아파트 CCTV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민씨 바지 주머니에서 "아이를 건강과 앞으로 삶이 걱정된

다.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어 먼저 떠난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및 민씨가 평소 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등으로 미뤄 민씨가 두 아이와 함께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민씨가 투신한 아파트 난간(110cm)이 두 자녀 키보다 높아 스스로 뛰어내리기 힘들다는 점 등을 감안,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중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한국무용 배우는 어르신들 12일 오후 광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찾은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한국무용을 배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확 코 앞 허탈한 어민들 완도 김 양식장 대량 훼손

경찰, 항해 선박 등 수사

완도 해상에 설치된 김 양식장이 대규모 훼손됐다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김모(54·완도군 노화읍)씨 등 어민 7명이 지난 8일 완도군 노화읍 서리 서남도 일대 해상에서 설치해놓은 김양식장이 훼손돼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 등은 "8일 오전 양식장에 나가보니 260척(1척 너비 2.2m×길이 40m)의 김 양식 시설이 모두 파손돼

부서져 있었다"면서 "김 수확 시기에 양식장이 훼손돼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나가던 선박이 김 양식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현장 주변을 지나간 선박들의 항해 기록을 찾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너울 등 기상 악화에 따라 양식장이 훼손될 수 있는 점 등도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니원침 (8772) 김장동



강동희 감독 구속

의정부지법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돈을 받고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원주 동부 강동희(47) 감독을 구속했다.

강 감독은 2011년 2~3월 브로커 최모(37)씨와 전 프로야구 선수 조모(39)씨 등 두 명으로부터 총 4700만 원을 받고 주전 선수를 빼 일부러 지는 방법으로 4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5일장·축제장 노인 탄 소매치기

○전국 5일장·지역축제장 등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 탄 소매치기 일당이 경찰서행.

○12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최초(64)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곡동 한 5일장에서 김모(67)씨의 금목걸이를 낚아채 가는 등 최근까지 22회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경찰은 이들이 고의로 안경을 떨어뜨려 김씨의 시선을 따돌린 뒤 도구를 이용해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순식간에 훔쳐 가는 등 기술·바탕잡이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국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롯데마트 운암동 우회 입점 철회"

광주 북구의회 촉구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이 롯데마트의 운암동 대형마트 우회 입점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북구의회 이창재 의원은 12일 "지역경제 죽이는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광주는 대형마트 과밀도가 16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아 심각한 과포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북구는 매곡동 이마트 입점문제와 첨단2단지 내 대형 유통매장 입점 추진 등으로 벌써 분점 및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다"며 "이로 인해 중소상인의 생존이 어렵고 골목상권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구 의원 일당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

호를 위해 유통 대기업들의 지역상권 파괴행위와 대형마트 우회 입점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 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북구의 대형마트 심의 회의록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건축위원회의 운암동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은 위원회가 대형마트 심의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갖게 만든 매우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산구 건축위원회가 첨단지구 대형마트 건축심의 회의록을 바로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위원회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 및 교통문제 등이 면밀하게 분석했는지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심야 산도박 조폭

순천경찰, 19명 적발

순천경찰은 12일 야산 정상에 천막을 치고 도박판을 벌인 광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김모(41)씨 등 19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5일 새벽 0시30분께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 뒷산 정상에 천막을 설치한 뒤 이른바 '도리 짓고 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진주·순천 등지에서 가담자를 모집하고 천막 앞에 보조까지 세워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판당 3분가량 걸리는 회당 수백만원이 오간 점 등으로 미뤄 수천만~억대 도박판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주최자인 김씨와 총책임인 다른 폭력조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노인 등친 윗 사기꾼

역할 분담에 입단속까지... 조폭 일당 23명 검거

광주천 수중 추격전도

광주 도심 산책로를 거니는 노인을 유인해 윗 도박을 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시 동구 구동 광주공원 사각정 아래 천막. 광주 M과 행동대원 P(45)씨 등 7명은 산책로를 찾은 50~70대

노인 16명을 불러 모았다.

P씨 일당 중 2명은 직접 만든 가로 50cm·세로 50cm 크기의 윗판에서 2cm 크기의 작은 윗을 놔다.

지켜보던 노인들은 한 명당 적게는 2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 관돈을 내고 윗놀이 도박판에 끼어들었다.

오간 돈은 한 게임당 대략 30~40만 원으로 P씨 일당은 관돈의

10%를 챙겼다. J(65)씨는 '망'을 봤고 B(56)씨는 선이자 10%를 떼고 노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전주' 역할을 맡았다.

P씨 일당은 노인들에게 "경찰에 단속되면 무조건 '구경하다 잡혔다'고 말하라"며 입단속도 시켰다.

광주동부경찰은 이날 광주공원 등지에서 윗 도박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현장을 덮쳐 P씨 일당을 검거하고 현금 800만원과 윗판·윗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P씨 등 일당들은 광주천을 건너 도주, 경찰이 수중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P씨 등은 지난 두 달간 남구 양동·광주공원 인근 천막 등을 돌며 노인들에게 도박판을 열어주고 관돈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P씨 등 3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도박가담자 등 나머지 2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간장의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펼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와 한다. 말기신장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 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대한한의원회 의료원고성의빌 제120106-층-9819호 (광주) 광주점 062-368-5075

현대인 누구나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의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짝깍하고 눈물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옇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윗구멍이 걸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히가는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탤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일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일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